

파니움 - 번호 10

나라들의 흥망성쇠: 14만 4천 명의 인침과 다니엘 11:10-16의 숨겨진 예언적 역사

Jeff Pippenger
2025-04-16

11절과 12절의 주제는 남방 왕의 흥망성쇠이며, 2절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최종적인 흥망성쇠와 마찬가지로, 용의 권세의 마지막 지상 대표인 유엔의 최종적인 흥망성쇠(3절과 4절에 나타남)도 그러하다. 5절에서 9절은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교황권의 역사를 나타낸다. 538년은 교황권에 권세가 부여된 때를, 1798년은 교황권의 치명상을 가리키며, 그러므로 5절에서 9절은 짐승의 최종적 흥망성쇠를 나타낸다. 10절은 구 소련으로 대표되는 남방 왕의 몰락을 1989년으로 지목한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모든 민족은 그들이 '감시자와 거룩한 이'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가 드러나도록 땅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되었다. 예언은 세계의 위대한 제국들—바벨론,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흥망을 그려왔다. 이들 각각에 있어서도, 더 약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되풀이되었다. 각각 시험의 때가 있었고, 각각 실패했으며, 영광은 바래고 권세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다른 나라가 차지했다. . . .

성경의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워야 한다. 바벨론은, 그 권세와 장엄함—그 후로 우리 세상이 다시는 보지 못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견고하고 영구해 보였던 그 권세와 장엄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 없어졌다.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사라진다. 오직 그분의 목적과 결부되어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만이 견딜 수 있다. 그분의 원칙만이 우리 세계가 아는 유일하게 확고한 것이다. 교육, 177, 184.

11절과 12절은 러시아로 대표되는 남방의 왕의 최종적인 흥망성쇠를 밝힌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미국의 최종적인 흥망성쇠를 밝힌다. 11장 전체의 예언적 서술은 왕국들의 흥망성쇠라는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은 11장의 예언적 메시지를 바르게 분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다니엘서 11장의 근본적인 관점은 그것이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반복적으로 예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 자매가 "이처럼 메대-바사 왕국과 그리시아와 로마의 왕국이 멸망하였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리시아"를 용으로, "로마"를 짐승으로, "메대-바사"를 거짓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요한계시록 16장 12-21절의 성취로서, 일요일 법령에서 그들의 부상이 시작되어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구성된 마지막 지상 왕국의 최종적인 흥망을 지적하고 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의 기록에 분명히 나타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배우기 위해" 취해야 할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겉모습에 불과한 세속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느냐 두지 않느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다. 그 생각을 이어, 화이트 자매는 하나님을 기초로 삼는다는 뜻을 이렇게 규정한다. "오직 그분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만이 지속될 수 있다." 그녀는 방금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지 않은 것은 모두 사라진다고 설명했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의 두 가지 판별 기준은 어떤 것이 "그분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지" 여부라고 했다. 그분의 품성이 곧 그분의 기초이다.

그리고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녀는 "그분의 원칙들은 우리 세상이 알고 있는 유일한 확고부동한 것들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곧 그분의 원칙이며, 그분의 원칙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낸다. 만물의 기초이신 하나님과 인류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문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나는 다니엘서 11장의 기초 구조가 왕국들의 흥망성쇠라는 서사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장한다. 영감이 우리에게 올바른 연구 방식에 대해 알려 주는 구절이 있다.

정죄해서는 안 될 역사 연구가 있다. 성경 역사는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치던 과목 가운데 하나였다. 열국을 상대하신 그분의 처사를 기록한 역사 속에는 여호와와 발자취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위대한 개혁 운동들 속에서 섭리의 역사하심을 연구하며, 대쟁투의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열국이 전열을 갖추어 가는 사건의 전개를 이해해야 한다. 치료봉사, 441.

성별된 역사 연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열국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와 그분의 개혁 운동들을 어떻게 섭리로 인도하셨는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따라서 성별된 역사는 외적 차원과 내적 차원의 두 줄기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역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 예언적 역사를 통해 "대쟁투의 최종 충돌을 위해 열국이 집결되는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 있다. 앞선 화이트 자매의 단락은 왕국들의 "흥망성쇠"로 나타나는 기초적 구조에 근거하여 거룩한 역사의 예언적 모형을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한 매우 통찰력 있는 설명에서 인용된 것이다.

기독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이 역사적 및 신학적 저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지식이 복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사람들의 견해를 힘들게 연구하는 일은 사역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역사와 신학의 지식이 담긴 두꺼운 책들로 도서관이 가득한 것을 볼 때, 나는 생각한다. 왜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는가? 요한복음 6장은 그런 책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35, 51, 47, 63.

비난받아서 안 될 역사 연구가 있다. 거룩한 역사는 선지자들의 학교에서 가르치던 학과 가운데 하나였다. 그분의 열국을 대하심에 대한 기록 속에는 여호와와 발자취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땅의 모든 민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위대한 개혁 운동들에서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며, 대쟁투의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민족들이 집결해 가는 사건의 전개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삶에 대한 폭넓고 포괄적인 관점을 갖게 해 줄 것이다. 그것은 삶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돕고, 사회와 국가라는 거대한 형제애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정도로 서로 결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구성원의 억압과 전략이 모두에게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인간의 업적, 전쟁에서의 승리, 권력과 위대함을 얻는 데서의 성공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간과된다. 민족의 흥망성쇠 속에서 그분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이는 드물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연구되고 가르쳐지는 신학은 인간의 사변을 기록해 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식 없는 말로 지혜를 흐리게' 하는 데만 쓰인다. 너무도 자주, 이렇게 많은 책을 쌓아 모으는 동기는 마음과 영혼의 양식을 얻으려는 열망이라기보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 정통해지려는 야망,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학문적인 용어와 명제로 제시하려는 욕망이다.

쓰여진 모든 책이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지는 못한다. '내게서 배우라,' 위대한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내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 생명의 떡이 없어 멸망해 가는 영혼들과 소통하는 데 당신의 지적 교만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 책들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할 실천적 교훈을 그것들로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사람들은 먹여지지 않는다. 정신을 이토록 피곤하게 만드는 그 많은 연구 가운데, 영혼을 위한 일꾼으로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없다.

구주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4:18. 그분의 가르침에서 그분은 가장 단순한 말과 가장 평이한 상징을 사용하셨다. 또한 '보통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 12:37. 이 시대에 그분의 일을 하려는 이들은 그분이 주신 교훈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육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사람들을 섬기는 이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적 힘을 주며, 그리하면 그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될 것이다. 치유의 봉사, 441-443.

화이트 자매는 더 나아가, 왕의 선택에 따라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참된 철학이라고 정의한다.

나라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벨론은 마침내 산산이 깨지고 무너져 사라졌는데, 이는 번영 속에서 그 통치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존재로 여기고, 왕국의 영광을 인간의 성취에 돌렸기 때문이다. 메대-바사 제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혔기 때문에 하늘의 진노가 임했다. 대다수 백성의 마음에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했다. 악행과 신성모독과 부패가 만연했다. 그 뒤를 이은 왕국들은 더욱 비열하고 부패했으며, 도덕적 가치의 척도에서 점점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갔다.

땅 위의 모든 통치자가 행사하는 권세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며, 이렇게 부여된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그의 성공이 달려 있다. 각 통치자에게 신성한 감시자의 말씀은 이러하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띠를 띠웠다.' 이사야 45:5. 그리고 옛적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말씀은 각자에게 생애의 교훈이다. '이로 네 죄를 끊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네 불의를 끊으라. 그리하면 혹 네 평안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 4:27.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보좌는 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자비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는 것,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러한 원리들의 작용을 알아보는 것—이것이 역사철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잠언 14:34; 16:12; 20:28; 다니엘 2:21.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나라들의 힘이 그들을 무적처럼 보이게 하는 기회나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랑하는 위대함에 있는 것도 아님이 밝혀진다. 그 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느냐로 가능된다. 선지자와 왕들, 501, 502.

11절과 12절의 주제는 남방 왕의 흥망성쇠를 다루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구절들이 14만 4천의 인침과, 1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9년 끝의 때에 시작된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번째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 인침은 사자굴의 다니엘, 불타는 풀무 속의 세 의로운 자들, 2장에서 짐승들의 형상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 세 의로운 자들, 9장에서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 지식의 증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 스가랴 3장에서 죄가 제거되는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스룹바벨, 이집트에서 둘째 통치자가 되는 요셉, 오순절을 앞두고 열흘 동안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엑서터 야영 집회의 밀러주의자들, 승리의 입성에서 행렬을 이끄는 나사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의 십사만 사천으로 상징된다.

11절은 2014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무렵 도래했고, 2023년 7월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희게 되는' 시각적 시험이 시작되었다. 11장의 다섯째 줄은 13절부터 15절이다.

다섯 번째 줄 개요

북방의 왕이 다시 돌아와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여러 해가 지난 뒤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때에 많은 이들이 남방의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또 네 백성 중의 포악한 자들도 목시를 세우려고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러므로 북방의 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할 것이요, 남방의 군대는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며 그의 택한 자들도 그러하지 못하리니, 맞설 힘이 없으리라. 다니엘 11:13-15.

이 구절들은 기원전 200년에 성취되었고, 서로 대립하는 왕들과 그들의 동맹이 포함된 파니움 전투를 지목한다. 또한 이 구절들은 이교 로마가 처음으로 다니엘 11장의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낸 역사적 시점이기도 하다. 이 구절들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최후의 흥기와 몰락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신 성경적 역사도 포함하는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자리매김한다. 이 역사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는"으로 이루어진 12장의 세 가지 시험 중 셋째가 도래함과 함께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예표한다.

이 세 구절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이 나타나는 16절로 이어진다. 1844년 8월 17일 엑서터 야영 집회가 끝났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66일 동안 미국 동부 해안 전역으로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기별을 전했다.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고 한 부류는 기름이 없으며, 그것을 식별해 주는 모든 것들이 있는 기간이 있다. 시몬 바요나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을 때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이 표지된다. 그 시점부터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들에 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십자가는 은혜의 시기 종결의 상징이며, 엘리야에 의해 예표되었던 세레 요한에 의해 예표되었던 윌리엄 밀러는 세레 요한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시기 종결과 관련된 사건들"을 제시하도록 일으켜 세워졌다. 세레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가 베푸는 세레에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였느냐?" 마태복음 3:7.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다.

아합은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의 시대에 벵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으니, 그가 그 기초를 그의 만아들 아비람을 잃을 때에 놓았고, 그 문들을 그의 막내아들 세굽을 잃을 때에 세웠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였다. 길르앗 거민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에 의하지 않고는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6:33-17:1.

현대의 개혁자로서의 윌리엄 밀러의 사역에 관하여 화이트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깨닫도록 일깨워져야 했고, 시험 기간의 종결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에 대비하도록 각성되어야 했다." 위대한 논쟁, 310쪽.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은 '은혜기간의 종결과 관련된 사건들'을 가리킨다. 그 사건들은 마지막 때인 1989년에 봉인이 풀려 분명히 드러났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구주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고, 천사들이 임하여 그분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명으로부터의 현세적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는 그분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신다는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말씀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사라져 버렸고, 시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분이 미리 경고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와 같이 예언 속에서 미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 앞에 열려 보였던 것만큼 우리 앞에 분명하게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와 관련된 사건들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의 사업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무수한 사람들은 마치 그것들이 결코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중요한 진리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사탄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모든 감화를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으며, 환난의 때가 이를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대쟁투, 595쪽.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곧 파니움, 곧 13절부터 15절이었으며, 이로써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엑서터 캠프 집회의 역사를 예표하셨다. 14만 4천의 개혁 운동의 시작에서 '은혜의 시기 마감과 관련된 사건들'의 봉인이 풀렸고, 14만 4천의 그 운동의 끝에서는 '은혜의 시기 마감과 관련된 사건들'의 봉인이 40절의 감추어진 역사 속에서 풀린다.

“오늘날 엘리야와 세레 요한의 영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자들은 심판을 앞둔 세상에게 은혜기간의 마지막 때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과 관련하여 곧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에 주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선지자들과 왕들, 715, 716.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와 관련된 사건들”은 40절의 감추어진 역사 속에서 봉함이 풀리는 사건들이다. 스가랴 3장에서는 조사심판의 마지막 장면들이 묘사된다. 영감은 스가랴의 증언을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인침받는 자들과 연결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데 따르는 위험을 경고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으로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 악인들은 그들의 슬픔을 조롱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비웃으며, 그것을 그들이 말하는 '약함'이라 하여 냉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뇌와 자기 낮춤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성품의 힘과 고귀함을 그들이 되찾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그들이 죄의 지극한 죄악됨을 이토록 분명히 분별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완전한 순결에 눈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통회와 자기 낮춤은, 애통할 이유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면서도 완전함을 주장하는 자들의 스스로 족하다 여기며 교만한 영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합당하다. 온유와 마음의 겸손은 강함과 승리의 조건이다. 십자가 발치에서 굴복하는 자들을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다. 그들 자신은 자신들이 얼마나 든든히 보호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사탄의 부추김을 받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멸하려 하지만, 만일 그들의 눈이 도단에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열리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에워싸 진을 치고, 그들의 광채와 영광으로 어둠의 군대를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며 마음의 정결을 간구할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보라, 내가 네 죄악을 네게서 제하였으니 너를 예복으로 입히리라'라는 격려의 말씀이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의의 흠 없고 순결한 옷이 시련과 유혹을 받았으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진다. 멸시받던 남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보존되어, 모든 시대의 신실한 자들 가운데 기록된다. 그들은 미혹하는 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그들의 충성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궤계로부터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용서받고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정결한 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사탄이 그의 고소를 들이밀며 이 무리를 멸하려고 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이 오가며 그들 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서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것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그 노래다.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요.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되어 하나님과 어린양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된 자들이며,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제 그 천사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 있는 네 동료들아, 이제 들으라. 그들은 표적이 된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나의 종 '씩'을 나오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구속자이자 구원자로 드러나신다. 이제 참으로 남은 자들이 '표적이 된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들의 순례의 눈물과 굴욕이 하나님과 어린양 앞에서 기쁨과 존귀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 날에 여호와와 함께 씩이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땅의 소산이 이스라엘 중 피한 자들에게는 영화롭고 아름다우리라. 그리고 시온에 남은 자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증언, 5권, 474-476.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그 땅에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울' 때 '인침' 받는 에스겔의 무리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베드로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정결한 관을 받을 때 인침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허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행하는 자라 비방할지라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1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5, 6.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고, 내가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꺾어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에게 영원히 정혼시키리라. 참으로 내가 의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로 너를 나에게 정혼시키리라. 또한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나에게 정혼시키리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그 날에 이르러, 내가 응답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하늘에게 응답할 것이요, 하늘은 땅에게 응답할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할 것이요, 그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나를 위하여 땅에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하리라.' 호세아 2:14-23.

'그날에, . . .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집에서 피한 자들은, . . . 진리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이사야 10:20.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라'는 기별에 기꺼이 응답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그들을 매어 두는 모든 우상에서 돌아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의 기념비로서 세상 앞에 설 것이다. 모든 신적 요구에 순종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4:6-7, 12.

'보라, 날들이 이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밭 가는 자가 거두는 자를 앞지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모든 언덕들이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건축하여 거주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또 동산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아모스 9:13-15.' 리뷰 앤드 헤럴드, 1914년 2월 26일.

십사만 사천 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택된 세대가 인침을 받은 때부터도, 이방인에게 임하는 권고의 날 동안 십사만 사천 명의 생활 방식(행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권세와 힘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며, 그것들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 교회는 인간의 힘이라는 반석 위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졌으며,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사업에 견고함을 준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시편 146:3. '너희의 힘은 잠잠함과 신뢰함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 30:15. 영원한 의의 원칙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은 결코 허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점점 더 강성해질 것이니,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의 말씀이니라. 스가랴 4:6.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는 약속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9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건축하였고,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건축하여 이를 마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인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따라 하였더라. 이 집은 다리오 왕 통치 제육년, 곧 아달월[열두째 달] 삼일에 마쳤더라.’ 에스라 6장 14, 15절.” 선지자와 왕들, 595, 596.

13절부터 15절은 일요일 법령 때 안식일 준수자들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는 데 이르는 예언적 사건들을 나타낸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10절의 세 단계 중 세 번째를 나타낸다. 10절은 "정결케 함," 11절과 12절은 "희게 함,"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처녀들이 "연단"되는 시금석을 나타낸다.

다니엘서의 내적 메시지는 7장부터 9장의 올라이 강 환상으로 나타나며, 외적 메시지는 10장부터 12장의 히데겔 강 환상으로 나타난다. 12장은 내적 환상과 외적 환상의 절정이며, 그리스도께서 14만 4천을 세우고 정결케 하시는 방법을 제시한다. 10절부터 16절은 1989년부터 41절과 16절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나타낸다. 그 숨겨진 역사에 들어맞는 절들은 12장 10절의 완전한 성취를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하게 행할 것이며, 악한 자들 중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리니 오직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또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니엘서 12:10-12.

"지혜로운 자들"은 10절부터 16절을 이해하고 "지적으로"와 "영적으로" 모두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로 대표되는 외적 예언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자들이며, 일요일 법령 이전에 그 이해에 "지적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자들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대표되는 내적 메시지에 의해 변화된 자들이며, 일요일 법령 이전에 그 경험에 굳게 자리 잡았다.

"지혜로운 자들"은 "기다림"과 관련된 "복"을 받은 자들이며, 이는 십사만 사천을 열 처녀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는 자들로 지목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이 2023년 7월에 이르러, 이로써 "끝의 때"를 가리켰고, 그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을 통해 2023년 7월에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가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증거하였다. 11 더하기 11은 22이며, 이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한다. 그리고 십사만 사천을 산출하는 세 단계의 정결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은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밝혀지며, 이는 또 하나의 팔모니의 표식이 된다. 왜냐하면 열둘 곱하기 열둘은 십사만 사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